

2014년 11월 일

이탈리아 시렌토(Cilento) 지역
국외여행출장결과보고서

출장자: 김태윤(선임연구위원, 환경도시연구부)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I. 추진배경 및 목적	1
II. 개요	2
III. 방문지 및 견학내용	3
1. 이탈리아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국립공원	3
1-1. 생물권보전지역	4
1-2. 세계문화유산	6
1-3. 세계지질공원	8
2.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관리본부	9
3. 국제보호지역의 활용사례	11
3-1. 퍼토사(Pertosa)-아우레다(Auletta)	11
3-2. 카살레토 스파르타노(Casaletto Spartano)	13
3-3. 토르토렐라(Tortorella)	15
3-4. 모르제라티(Morigerati)	16
3-5. 파이스툼(Paestum)	17
IV. 시사점 및 의견	20

이탈리아 시렌토(Cilento) 국외여행보고서

I. 추진배경 및 목적

- 제주도내 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람사르습지가 있음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 2002년 12월 6일에 지정되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및 효돈천 천연보호구역,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 및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이 핵심지역(151.58km²)임
 - 한라산국립공원의 인접 국유림, 국립공원 북측 일부 및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일부가 완충지역(146.06km²)이며, 해발 200~600m에 이르는 중산간 지역 중 도시계획을 제외한 지역, 영천 및 효돈천의 양측 500m 구간이 전이지역(533.35km²)에 해당됨
 - 이중 육상면적은 전체 면적의 91.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제주도 면적에 약 43.6%에 해당되는 것임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은 2007년 6월 27일에 등재되었는데, 유산지구의 전체면적은 188.46km²로 제주도 면적의 약 10.2%에 해당됨
 - 이들 유산지구는 한라산(164.40km²), 거문오름용암동굴계(22.37km²), 성산일출봉 응회구(1.69km²)로 구분됨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10월 1일 가입, 제주도 전체가 세계지질공원(대표명소: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친자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층 등 9개소), 2014년 3월에 선홍동백동산, 우도, 비양도 등 3개가 추가되어 현재 12개의 지질명소가 지정됨
 - 제주도내 람사르습지는 2006년 10월 18일에 처음으로 등록된 물영아리오름습지(0.309km²)를 비롯하여 2008년 10월 13일에 등록된 물장오리오름습지(0.628km²), 2009년 10월 12일에 지정된 1100고지습지(0.126km²) 및 2011년 3월 14일에 등록된 동백동산습지(0.59km²) 등 4곳임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중 유네스코 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구축은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포함하여 통합된 보전관리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호지역의 운영체계 표준화 등에 대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이나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추진함
 - 그리고 IUCN 회원들은 세계 전역의 보호지역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구축을 하는데 자

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세계지질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적합한 보전이나 체계적인 통합 및 자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통합된 관리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유엔기구,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지원토록 요구함
- 따라서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3관왕 보유지역과 유사한 국외지역의 조사 연구 및 보호관리모델의 현지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제주도내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체계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자료 확보 및 국외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선진관리기법 개발연구에 대처하고자 함

II. 개요

- 국 가 : 이탈리아
 - 시렌토(Cilento)-발로(Vallo) 디(di) 디아노(Diano)의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및 세계유산 등
- 기 간 : 2014. 11. 09 ~ 11. 15 (7일간)
- 인 원 : 1명 (고정균,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 이학박사)
- 내 용 : 시렌토(Cilento)-발로(Vallo) 디(di) 디아노(Diano)의 국립공원
 - 국립공원관리본부(Ente Parco Nazionale del Cilento e Vallo di Diano)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활용지역(Pertosa-Auletta, Casaletto Spartano, Tortorella, Morigerati 등)
 -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Paestum 등)
- 일 정

구분	일자	교통	시간	내 용	지역
제1일	11. 09 (일)	KE1206 KE927	09:30 - 20:50	• 제주→김포→인천→로마	제주 인천 로마
제2일	11. 10 (월)	-	전일	•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 - 국립공원관리본부 등	시렌토
제3일	11. 11 (화)	-	전일	• 시렌토, 생물권보전지역 등	시렌토
제4일	11. 12 (수)	-	전일	• 시렌토, 세계지질공원 등	시렌토
제5일	11. 13 (목)	-	전일	• 시렌토, 세계유산 등	로마
제6일	11. 14 (금)	KE928	22:25	• 로마→인천	로마 인천
제7일	11. 15 (토)	KE1239	17:25 - 21:10	• 로마→인천→김포→제주	인천 제주

Ⅲ. 방문지 및 견학내용

1. 이탈리아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Cilento and Vallo di Diano) 국립공원

- 시렌토, 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Cilento and Vallo di Diano National Park, 이하 시렌토 국립공원)은 이탈리아 서남부의 티레니아 해(Terrhenian Sea)에 접해있는 캄파니아 지방(Region of Campania)에 위치하고 있음
 - 행정구역상의 정확한 위치는 캄파니아 지방 가장 아래쪽에 길쭉한 모양으로 있는 살레르노 주(Province of Salerno)임
- 시렌토 국립공원의 면적은 1,810.48km²(181,048ha)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임
 - 국립공원은 92.15km²(9,215ha) 해양보호구역과도 연계되어 있음
 - 더욱이, 국립공원의 가장자리에는 완충지역과 같은 연속지역(contiguous areas)이 있어, 이들 국립공원 면적은 한라산국립공원 면적(153.332km²)의 약 12배에 달하는 것이고, 제주도의 면적(1,849.3km²)과 유사함



사진 1. 시렌토, 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Cilento and Vallo di Diano National Park)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음

- 시렌토 국립공원 내에는 우리나라의 읍이나 면 단위 규모의 80개 지방자치체인 작은 도시(마을)가 있으며, 전체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269,846명임
 - 가장 작은 소도시는 세라메차나(Serramezzana)로 368명이며, 가장 큰 소도시는 카파초-파이스툼(Capaccio-Paestum)으로 21,265명임



사진 2. 시렌토 국립공원 내에는 80개 지방자치제(municipality)인 작은 도시가 있으며, 목축업과 임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시렌토 국립공원은 티레니아 해안부터 살레르노와 폴리카스트로(Policastro) 만, 아펜니노(Apennines) 산맥의 해발 1,899m에 이르는 산악지대까지임
 - 이 지역에는 특출한 자연경관, 동굴과 작은 만이 풍부한 해안, 장관을 이루는 침식된 석회암 대지인 카르스트(karst) 지형, 풍부한 지역 고유식물종이 있음
- 국립공원은 1997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Cilento and Vallo di Diano)으로 지정된 후 1998년 세계유산(문화, Cilento and Vallo di Diano National Park with the Archeological Sites of Paestum and Velia, and the Certosa di Padula), 2010년 세계지질공원(Parco Nazionale del Cilento e Vallo di Diano)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유네스코에 지정한 국제보호지역을 지닌 곳임

1-1. 생물권보전지역

- 1997년에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Cilento and Vallo di Diano)은 이탈리아 남중부의 티레니아 해 경계선에 위치한다. 전체면적은 181,000ha인데, 핵심지역이 26,000ha, 완충지대이 50,000ha 그리고 전이지역 105,000ha로 구분됨
- 생물권보전지역은 빗물에 패인 싱크홀, 동굴 및 침식된 석회암 대지인 카르스트 지형을 지닌 산악의 특징을 보여준다. 해안에는 동굴, 샘들이 분포하는 절벽, 만과 모래 해변을 볼 수 있음
- 생물권보전지역의 식생은 건조한 지중해식 기후에서 볼 수 있는 단단한 잎을 가진 경엽식물중 키가 작은 나무군락인 가리그(garrigue)부터 털가시나무 산림지대, 참나무, 서어나무 및 오리나무류의 혼효림, 유럽 너도밤나무의 자연림, 고지대의 초원지대까지 0m에서 1,898m까지 해발고도에 따라 다양함



사진 3. 시렌토 국립공원의 식생은 해발고도에 따라 다양하며, 1천백여종이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음

- 연안 서식지와 호염성 식생은 유럽 해안의 바위틈이나 후미진 곳에 잘 자라는

Rock Samphire(*Crithmum maritimum*)을 흔히 볼 수 있고, *Limonium multiforme*와 *Limonium remotispiculum*이란 식물이 우점함

- 해양과 대륙의 언덕은 *Ammophila arenaria*가 우점하며, 경엽식물 관목지대는 특산식물인 *Genista ephedroides*가 자람
- 자연적 초지에는 *Micromeria graeca*, 흑종초(*Nigella damascena*)와 *Reichardia picroides*란 식물의 분포가 특징적임
- 암반에는 팔리누리앵초(*Primula palinuri*), *Dianthus rupicolae*와 눈꽃(*Iberis semperflorens*)과 같은 특산종이 자람
- 그 외에 참나무(*Quercus ilex*) 숲, 침엽수(*Pinus halepensis*)와 밤나무(*Castanea sativa*) 숲이 주요 식생을 이루고 있음

○ 생물권보전지역에 약 1,800여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10%가 식물지리하적으로 중요한 특산 및 희귀식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중 가장 잘 알려진 종은 지역의 특산식물이며 공원로그에 사용되고 있는 팔리누로앵초(*Primula di Palinuro*, *Primula palinuri*)임

○ 동물은 조류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조류상이 유명하며 늑대, 야생돼지 등의 고등동물에서 민물새우 등의 담수어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진 4. 생물권보전지역에는 하천 등이 발달되어 있어 민물새우(오른쪽) 등의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음

○ 생물권보전지역에는 약 30만명이 주로 전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현지 기업의 활성화, 지방유산의 복원, 농업과 임업 및 어업의 회복, 생태관광의 촉진을 통하여 지역에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임

- 이중 시렌토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은 오랜 전통을 가졌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값이 싼 올리브 오일의 수입과 인구 이주로 어려움을 겪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올리브 오일 협동조합은 유기농 기술을 도입하였

으며, 품질에 대한 생산자 표시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 생물권보전지역 내 연구는 대상 분포, 맵핑 등을 통한 동식물의 통합 모니터링되고 있는데, 늑대나 야생돼지 등의 모니터링과 연구프로그램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중해의 중심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센터는 새의 먹이에 대한 연구와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조류의 이동연구를 확립해 오고 있음

1-2. 세계문화유산

- 세계유산은 국립공원 내에서 과거 번영했던 두 도시인 파이스툼(Paestum)과 벨리아(Velia)에는 고대 그리스식 신전, 채색벽화무덤, 광장, 공공건물 등 고대 문명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지속적인 보호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정됨
 - 1998년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의 정식명칭은 ‘파이스툼과 벨리아 고고유적과 파둘라 수도원을 포함하고 있는 시렌토, 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Cilento and Vallo di Diano National Park with the Archeological sites of Paestum and Velia, and the Certosa di Padula)임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은 선사시대와 중세시대에 시렌토 지역은 동서로 연결된 산맥을 이용하여 뛰어난 방식으로 문화, 정치, 상업의 주요 경로로 제공하면서 중요한 문화경관을 만들어 낸 부분(기준 iii), 지중해 지역에서 인간사회의 발달과 아드리아(Adriatic)와 티레니아(Tyrrhenian)해 사이뿐만 아니라 중앙 지중해 지역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제공되었던 유존 문화경관이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설명된다는 점(기준 iv)임
- 시렌토는 뛰어난 문화적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성지와 식민지들이 세 개의 산능선을 따라서 그 지역의 역사적 발전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음
 - 이것은 선사시대와 중세기간 동안 무역의 주요 경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상호 작용에 의한 것임
 - 또한 시렌토는 마그나 그라이키아(Magna Graecia)¹⁾의 그리스 식민지 집단 및 에트루리아(Etruscan), 루카리아(Lucanian) 원주민들과의 경계이며, 고대의 두 개 주요 도시 즉, 파이스툼(Paestum)과 벨리아(Velia)의 유적이 여기에서 발견됨

1) 고대 남이탈리아 동해안에 건설된 그리스의 식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기원전 8세기 이래로 식민지가 많이 건설되었는데, 시바리스(Sybaris), 타렌툼(Tarentum) 따위가 유명하다. 그리스 문화를 로마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진 5. 시렌토에는 넵투누스 신전(Neptune, 왼쪽)과 주거지구 유적(오른쪽) 등이 있는 파이스툼(Paestum) 등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이 있음

○ 선사시대 동안, 그리고 유럽역사에서 서기 1000~1450년인 중세에 다시 시렌토 지역은 동서로 연결된 산맥들의 산마루를 이용하여 이례적일 정도로 특출한 문화, 정치와 상업소통의 주요 경로로 제공된 지역임

- 그렇게 함으로서 아드리아와 티레니아해 사이에 탁월한 중요성을 가지면서 질 높은 문화 경관이 만들어짐

- 주목할 만한 유적지는 그리스 도시 포세이도니아(Poseidonia)인 파이스툼이며, 도시의 성벽 안에는 상당수의 특출한 공공 건축물들이 주된 남-북의 축인(카르도 막시무스, cardo maximus)과 신성한 길(Sacred Way) 사이에 드러내 왔음

·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헤라(Hera), 케레스(Ceres) 및 포세이돈(Poseidon)임

· 가장 오래된 신전은 헤라신전이며, 여기에 있는 다른 신전은 도리아 양식(Doric)이고, 아마 케레스 아테네(Athena) 전용인 신전은 기원전 약 500년 때의 것임

○ 주거 군락은 중앙성 또는 감시탑 주위에 있고,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교회의 존재이고, 몇몇의 경우에는 수도원 그룹임

- 수도원 특징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1306년 시작된 발로 디 디아노 건설(Vallo di Diano. Construction)의 파둘라(Padula)에 있는 체르토사 디 산로렌초 수도원(the Certosa di San Lorenzo)이지만 현재의 유형은 17세기와 18세기에 만들어진 근본적인 바로코 양식임

1-3. 세계지질공원

○ 지질공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질명소들이 층서적인, 지형학적인, 구조적인, 고환경적인, 수리지질학적, 고생물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경관적인 또는 고대 광산과 같은 경제상의 가치를 지닌 곳도 지질명소에 포함되어 있음

○ 지질공원은 시렌토와 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 전 지역을 차지함

- 공원의 해안은 티레니안 해안부터 캄파니아 해안 이상까지 뻗어있는데, 완만한 북부와 아주 불규칙한 남부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강한 형태적 대비는 지질의 뚜렷한 양자의 자연과 지역의 오랜 기간 진화적인 역사에 기인한 것임
- 지질공원 내에 있는 탄산 대산괴는 동굴, 돌리네를 지닌 거대한 고원, 강력한 신생 구조상의 활동으로 경사가 형성된 폴리에(polie) 깊은 협곡과 골짜기의 절개지역을 포함하는 카르스트 형상의 특징을 지님
- Stella 산, Gelbison 산 및 Centaurino 산의 표면에 노출된 Cilento" (Auctorum)의 플리시(Flysch, 성장 중인 조산대나 그 전신으로 여겨지는 지대의 해역(海域)에서 볼 수 있는 해성(海成) 퇴적물 전체; 사암과 이암이 번갈아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 상층에 사질의 역암 구성물과 밑에 있는 점토질, 이회질 구성성분은 Velia, Mingardo와 Bussento의 언덕과 연관되어 있음
 - 이 경관은 경사과정, 하천침식을 통해 형상을 만들었음
 - 지질공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질명소들이 있는데, 층서적인, 지형학적인, 구조적인, 고환경적인, 수리지질학적, 고생물학적 의의에 기초하여 지정되었음
 - 또한 특별한 경관적인 위치 또는 고대 광산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곳도 포함됨
- 지질공원 지역의 규모와 지질다양성은 다양한 중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룸
- 지질공원의 대부분의 지역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시렌토 디 디아노 국립공원의 생물권보전지역과 일치함
 -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중요성을 지닌 지역은 시바리스(Sybaris, 남부 이탈리아의 고대 그리스 도시) 칼라브리아(Calabrian) 도시로 이주한 그리스 정착민들에 의해 약 기원전(BC) 650년에 세워진 약 120ha 규모의 파이스툼 도시가 포함됨



사진 6. 시렌토는 깊은 계곡과 수많은 동굴(퍼토사 천사의 동굴, 오른쪽) 등을 지닌 카르스트 지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2.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관리본부(Ente Parco Nazionale del Cilento e Vallo di Dian)

- 시렌토 및 발로의 디아노 국립공원내에 있는 국립공원관리본부의 기구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이탈리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Protection of Land and Sea)에서 설치하여 전담하고 있음
 - 이들 조직구조는 총괄본부(direzione)에 서비스, 정보전달(Servizio Comunicazione) 부서와 3개의 분야 즉, 자연보전기술분야(Area Tecnica Conservazione Natura), 지원분야(Supporto della Direzione) 및 홍보분야(Promozione)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자연보전기술분야 책임자 산하에는 기술 서비스(Servizio Tecnico) 부서에 각각의 사무실이 나누어진 3개의 업무담당과 자연보전서비스(Servizio Conservazione Natura) 부서에 연구기능을 포함한 2개의 담당이 있음
 - 지원분야에는 비서실, 교환실 뿐만 아니라 2개의 업무담당을 있는 총무(Servizio Affari Generali), 2개의 업무담당을 있는 재정(Servizio Finanziario) 및 하나의 업무담당을 지닌 국립공원 프로젝트 커뮤니티(Progetti Comunitari e nazionali)부서가 있음
 - 홍보분야에는 홍보, 물류담당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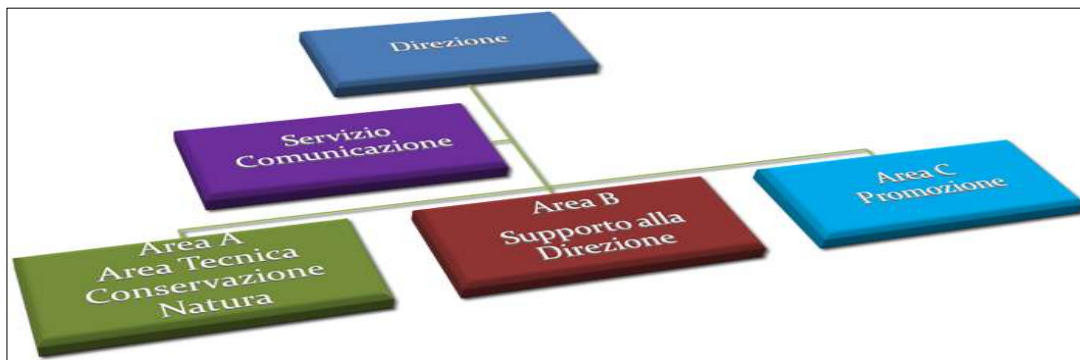


그림 1.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관리본부의 조직체계

- 국립공원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공원로고 외에 세계유산, MAB, IUCN, 지오파크의 로고를 나열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음



그림 2.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관련 로고

- 국립공원관리본부는 오래전부터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은 외관상 빈약해 보이나, 건물내 지하 및 절벽 등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내부구조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 전시실, 회의실 및 사무실 등이 최적의 근무 공간을 만들고 있음
- 국립공원관리본부에는 지질, 동식물, 생태, 문화, 유적분야 연구 인력만 35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본부에서는 연구, 기획, 조정업무는 물론 시설 인허가 관련 사항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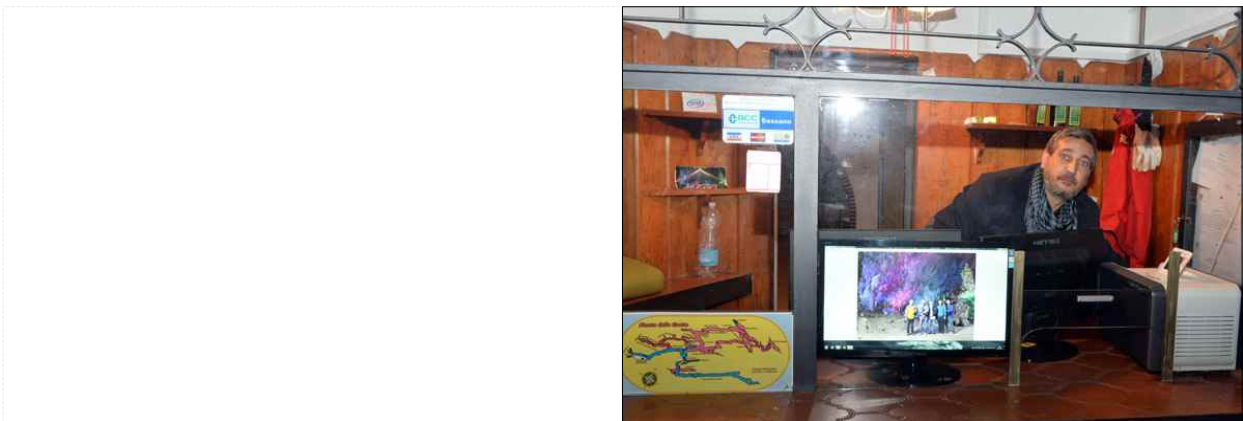
사진 7. 시렌토 국립공원관리본부 전경 및 내부 모습



3. 국제보호지역의 활용사례

3-1. 페토사(Pertosa)-아우레다(Auletta)

- 페토사의 천사동굴(Grotte de'll Angelo, Pertosa; Caves of the Angel, Geosite 114)은 3천5백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 동굴은 남부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굴이며, 타나그로강(Tanagro) 또는 리그로강(Negro) 지하를 가로지는 유일한 동굴임
 - 약 3km 동굴은 알부르니(Alburni) 산 아래에 썩기 모양이고, 여기저기의 수많은 자연 홀의 끝부분에는 터널과 동굴의 놀라운 연결을 만들어 냄
- 살레르모에서 40분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는 이 동굴은 남부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동굴지역인데, 살레르모주를 찾는 탐방객 대부분이 이곳을 관광하고 있음
 - 이 동굴은 알부르니 산의 대산괴에 약 3km 정도로 뻗어 있고, 빛과 어둠의 경이로운 변화, 물과 육지 사이에 긴장됨을 느낄 수 있음
 - 페토사-아우레다 동굴은 유럽에서 지하에서 배로 다닐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동굴 중 하나임
 - 동굴 여행은 3개의 코스가 있으며, 1시간 40분정도 소요되는 전체 코스는 입장료가 약 20유로(약 2,800원)이고, 월별로 입장하는 시간 및 횟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겨울 및 봄에는 하루 2회로 가장 적고, 8월이 10회 정도로 가장 많음



- 전문가이드 7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한다는 관리사무소측은 이 굴의 길이는 대략 9km에 이르며 이 가운데 3km를 개방중이라 설명했다
 - 굴의 최대 높이는 25m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웅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일대에만 석회동굴이 400여개나 분포해 있다고 함
 - 페토사-아우레다는 굴 속에 호수를 거느리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용천동굴을 연상케 하고, 관광객들은 작은 배를 타고 호수를 따라 동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음

- 수심은 대략 1~4m 정도, 초당 약 400ℓ의 물이 동굴 속으로 유입며, 동굴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 1920년대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장치가 시설되었음
- 동굴에서는 4,000년전 선사인들의 집터 흔적도 발견되었으며,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년에 6만여명이 이 곳을 방문하는데, 외국인은 20%를 차지한다고 함
 - 탐방객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고, 1~2월에는 휴관하는데, '동굴도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논리임
-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질공원 등재 후 국제적 연계와 주민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함
 - 동굴 인근에는 7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주민들은 동굴 브랜드를 활용해 식당을 운영하고 특산품을 판매함
 - 3년 전부터 동굴 앞 강에서는 래프팅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돼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통해 환경을 잘 지켜야 지질공원 브랜드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함



사진 10. 퍼토사 동굴의 관리사무소 및 안내판 모습

3-2. 카살레토 스파르타노(Casaletto Spartano)

- 카살레토 스파르타노는 해발 423m에 위치해 있으며 1,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 70km²의 넓은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시렌토 특산인 검은색 양과 임목, 농업, 일부는 상업에 종사함
 - 카살레토 주민들은 1,500년 이상 주로 양을 치며 목축을 주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으나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평소 연간 약 2,000명 정도 방문하던 탐방객이 6,0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여름 휴가철인 7~9월 기간 동안 이곳을 탐방한 인원)하면서 세계지질공원

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

- 시민들은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탐방객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전문가 가이드와 자원봉사자를 결성, 자연친화적인 탐방로 및 1914년부터 전력생산을 하여 왔던 하천 유량관리·용수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박물관으로 건립하는 등 탐방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이 곳에서 해설사로 활동중인 동물학을 전공한 아날도 유지치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렌토 국립공원과 공원 내 자치구는 먹는 것, 탐방활동도 ‘슬로우’를 지향 한다”라고 했으며, 시-렌토의 ‘렌토’가 ‘천천히’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연의 리듬을 따르라는 것임
- 협곡에는 ‘비너스의 머리카락’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폭포 ‘카펠로 오아시스 (Capello Oasis)’가 절정을 자랑함
 - 이 폭포는 독특한 경관과 수량으로, 유럽에서도 특별한 지역으로 멀리 북유럽에서도 많이 찾는 곳으로, 폭포수가 암시하듯 이 일대는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기로 소문난 곳임
 - 협곡에는 동·식물과 민물새우, 조류의 서식지이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종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굴 등 지질자원도 곳곳에 산재해 있음



사진 11. 카살레토 스파르타노에 있는 생태탐방로 모습과 안내판



사진 12. 카살레토 스파르타노 마을의 생태탐방을 해설하는 가이드 및 자원봉사자와 의견을 나누었고, 제주 국제보호지역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는 모습

○ 시렌토 국립공원 내 80개 자치구 중 하나인 카살레토 스파르타노의 스카네일리 지아코모 시장은 “이전에 탐방객들에게 1유로의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유로의 관람료를 받아 이를 자연보전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함

- 주민들은 탐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한 레프팅 프로그램, 생태탐방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시에서는 주민들과 연대해 지난해 유럽지질공원축제 장소로 활용하게 되면서 마을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스카네일리 지아코모 시장은 “앞으로 인근 마을과 연계해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함



사진 13. 국제보호지역의 활용방안 등을 카살레토 스파르타노의 스카네일리 지아코모 시장과 시청 시장실(왼쪽)과 생태탐방로 현장(오른쪽)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음

3-3. 토르토렐라(Tortorella)

○ 토르토렐라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시렌토 국립공원내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자치구 권역 연계 프로젝트임

- 'TOOK-MC(Transfer Of Organised Knowlwdge, Marche- Cilento)'라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이곳의 유네스코 자원을 기반으로 자치구 권역연계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임
- 시렌토와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마르케 지역과의 이른바 지식 나눔 프로젝트로서, 이상적인 도시와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4개 권역을 연계시킨 이 프로젝트는 나폴리 대학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년 6개월간의 검토와 구상을 거쳐 올해 7월 17일 공식발표함
- 전체계획은 이탈리아 정부주도하에 수립되었다. 모두 6개 자치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는 1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사진 14. 토르토렐라의 마을 모습과 함께 TOOK-MC에 대해 시렌토 프로젝트 담당자인 프란코 벨이 설명을 나누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와 시렌토 국립공원관리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TOOK-MC'라 명명된 프로젝트의 핵심지구가 바로 카살레토와 토토렐라, 모리제라티임

- 'TOOK-MC'는 유네스코 지원을 기반으로 자치구 권역간 연계 발전으로 위한 종합계획으로, 이른바 시렌토 국립공원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체계화된 지식정보 교류사업'임
- 제주에 비유한다면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내 마을들을 권역으로 연계시키는 종합발전계획으로 'TOOK-MC'는 모두 4개 권역을 연계시키고 있음
- 취재팀이 찾은 카살레토와 토토렐라, 모리제라티 등 3개 자치구는 4개 권역중 1곳으로, 'TOOK-MC'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지역임

3-4. 모리제라티(Morigerati)

- 모리제라티시는 600명의 시민이 거주하지만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오래된 도시이고 해발 300~500m 고지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음

- 마을에는 1200년대의 건물들이 즐비하며 지금도 그 건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역사적인 도시임
 - 중세 산정상부 석회동굴에 많은 수도원이 형성되었으며, 여기서 수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마을로 오래된 역사유적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탐방코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내 박물관 운영이 대표적으로 박물관에는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표본 전시부터 식물을 이용하여 역사적으로 이용되었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역사적 건물, 수도원이라는 자원만으로는 발전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자치구가 갖는 자원과 서로 연계하여 지역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TOOK)를 추진하고 있음
- TOOK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자치구의 특성을 토대로 이상적인 도시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권역별 연계 발전 전략 프로젝트임



사진 15. 모르제라티의 마을 내 마을박물관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모습

- 현지 언론은 시렌토 현지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음
- 현지 언론은 인터넷판의 장문의 기사에서 '한국의 제주도에서 시렌토 국립공원을 찾았으며, 시렌토국립공원과 제주도가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전함
- 이어 시렌토 국립공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연적인 장소들을 둘러봤으며, 특히 이 지역의 광역권 발전프로젝트인 'TOOK'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음

3-5. 파이스툼(Paestum)

- 시렌토국립공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대유적이 즐비함
- 국립공원 내에서 번영했던 두 도시인 파이스툼과 벨리아에는 고대 그리스식 신전,

채색벽화무덤, 광장, 공공건물 등 고대 문명 유적지가 잘 보존돼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속적인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등재되었음

- 이 세계문화유산의 정식명칭은 '파이스툼과 벨리아 고고유적과 파둘라 수도원을 포함하고 있는 시렌토, 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Cilento and Vallo di Diano National Park with the Archeological sites of Paestum and Velia, and the Ceratosa di Padula)'임

○ 세계문화유산 '파이스툼'은 시렌토와 그 일대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 주요 무역로로서 문화적·정치적 교류의 중심지임을 보여줌

- 신전과 주거지가 지금은 뼈대만 앙상한 채 남아있지만 당시의 역사적 발전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문화경관으로 손색이 없음
- 선사시대에 이어 중세에 시렌토 지역은 동서로 뻗어 있는 산맥의 등성이를 이용해 보기 드문 방식으로 문화와 정치, 상업이 교류되는 주요 통로의 구실을 했음
- 파이스툼은 이 같은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우수한 문화와 경관을 만들어 냈고, 지중해 무역의 인류사회 발전에서 시렌토는 아드리아 해와 티레이나 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로 구실을 했으며,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 문화경관에서 생생하게 드러남

○ 시렌토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유적지로 평가받은 파이스툼은 그리그 도시인 '포세이돈의 도시'임

- 파이스툼은 해안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성곽 안쪽에 남북으로 난 거리 카르드 막시무스와 '신성한 길' 사이에는 특별한 공공건물들이 다수 있음
- 이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헤라신전, 케레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으로, 그 중 헤라신전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테레스 신전은 기원전 500년경에 건설됐다고 함

○ 파이스툼 도시는 그리스 식민지들이 땅이었던 실리(Sele) 강의 언덕에 있는 헤라(Hera)신전, 그리고 파이스툼 신전들의 있는 곳의 경이로운 결과들의 발견은 지중해에 있는 전체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 고대 유적지이고, 모든 그리스 건축양식의 가장 완벽하게 온전한 것이다(A. Maiuri)라고 칭송되고 있음

○ 영겁처럼 느껴지는 오랜 시간의 기념물 즉, 물에 뛰어드는 사람의 무덤, 신석기 시대의 묘지 및 루카니아인(Lucanians)의 무덤, 시바리스(Sybarites), 에노트리아인(Enotrians), 캄파니아인(Capanians), 루카니아인과 로마인(Romans)의 흔적을 보기 위해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함

- 고대 포세이돈 (파이스툼)은 시간에 의해 지울 수 없는 오랜 시간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잠시 동안의 방문으로 보다 더욱더 누릴 수 있음
- 이곳은 차량으로 나폴리(Naples) 만에서 2시간, 포텐샤(Potenza)에서 1시간, 바리(Bari)에서 약 3시간이면 도착함
- 살레르노주의 다채로운 역사적, 자연적 유산의 중심에 있으며, 대중의 호평으로, 파

이스툼은 일반적으로 시렌토, 발로 디 디아노와 알부르리(Alburni) 국립공원의 수도라 생각함

- 이 곳은 세계 관광에 알려지지 않은 풍부한 환경,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며, 종종 자신들이 쌓여져온 독자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놀라기도 하는 지역임
- 그러나 이들의 동질성은 만약 안전과 재생의 노력을 갖고 문화, 농업(올리브, 와인, 아티초코), 건강 다이어트와 문화유산의 장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와 질 높은 삶에 대한 새로운 번영에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

○ 박물관은 고대 유적지의 독자성과 장시간 변화의 생생한 묘사와 복원을 제공함

- 방문자들은 성전의 놀라운 혼합체, 시민의 거주지와 공공장소, 성지, 무덤, 공연장, 자연적으로 인간이 만든 환경을 수세기를 넘어 나타난 풍부한 발견물들을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음
- 마우리지오 데 비타(Maurizio De Vita, 1938)의 야심적인 디자인 기초하여, 박물관은 1952년에 개방되었고, 고대도시 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 이 곳은 선사시대부터 그리스, 루카리아와 로마인 문화의 흡수와 중단에 이르기까지 파이스툼과 주변지역의 도시생활에서 4개의 결정적인 시대를 선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소장품 범위는 가장 오래전에 발견물인 실리강의어귀에서 있는 헤라신전의 가져온 메토프(metope)의 지붕부터 1960년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벽화무덤(painted tomb)까지 이룸



사진 18. 파이스툼 박물관내 전시모습

IV. 시사점 및 의견

(1)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및 활용방안

- 시렌토 국립공원 구역 안에는 다양한 생물자원, 고대 유적, 동굴, 수도원 등의 역사·문화자원 및 석회동굴, 폭포 등 지질자원을 갖고 있으며 양을 방목하여 키우는 전통산업 등이 아직까지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곳들도 있음
 -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원이 소중한이나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평범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지역의 자원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자각과 함께 자긍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 시민들은 이를 계기로 자연보전에 대한 필요성과 자연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자치단체 발전방안, 하나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다른 마을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연계한 권역단위 발전구상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부흥을 모색하고 있음
 - 이들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발전전략의 특징은 자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첫째, 중앙으로부터는 계획하여 시달되는 Top-down 방식에 의한 개발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둘째,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우선하고, 탐방객들이 처음에 생각하며 찾아갔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원래 자원이 각조 있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탐방만족도를 제고하고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셋째, 과도한 물리적 변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건물, 현대적 시설을 도입하기 보다는 이미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넷째, 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거나 인위적인 시설을 도입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다른 지역들과 서로 윈윈(Win-Win)하는 공동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탐방객의 탐방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시렌토 국립공원은 유럽에선 유명한 '유네스코 3관왕' 지역임
 -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생물권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필두로 그 이듬해엔 세계유산에 등재됨
 - 그리고 2010년 제주와 함께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제주와 다른 게 있다면 자연유산이 아니 고고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점임

- 시렌토 국립공원은 이탈리아 국제보호지역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큼
 - 공원 면적만 하더라도 1,810.48km²로, 한라산국립공원의 12배에 달하며 제주도의 면적과 엇비슷함
- 시렌토의 특징은 자율성이 넘쳐난다는데 있음
 - 유네스코 3관왕 통합관리체계도 현지 국립공원관리본부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국제보호구역과 관련된 연구와 기획, 조정업무 등이 모두 이들의 몫임
 -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열악한 연구시스템은 물론 주어진 역할 및 권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임
 - 시렌토 국립공원 내엔 우리나라 읍·면정도 크기의 80개 지방자치구가 존재하는데,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운영하는 주체들임
- 최근 시렌토의 유네스코 자원을 기반으로 자치구 권역 연계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인 'TOOK-MC'를 발족시키고 추진 중임
 - 시렌토와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마르테 지역과의 이른바 '지식 나눔 프로젝트'로 4개 권역을 연계시킨 이 프로젝트는 권역별 특징적 자원을 패키지화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임
 - 이상적인 도시와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시렌토 국립공원의 관리 및 활용방안 목표에 대한 검토 및 제주도에 적용여부 등은 고려해 볼 만하다.

(2)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체계

-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은 국지적으로 자연, 문화 등 자원의 요소가 다양하고, 국립공원 내에는 80개의 작은 도시가 있음
 - 국립공원은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세계유산 등 국제보호지역이기도 함
 - 국립공원의 자원의 보전과 활용의 중심에 국립공원관리본부의 역할이 있음
- 국립공원관리본부는 연구, 기획·조정, 지원, 홍보 및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라 볼 수 있음
 - 조직구조는 총괄본부에 서비스·정보부서와 자연보전기술, 지원 및 홍보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서에는 기술, 자연보전, 연구기능, 총무, 재정, 프로젝트 커뮤니티, 홍보, 물류, 환경교육 등 다양하게 세분화된 업무담당자 있음
 - 더욱이 조직의 모든 부서명은 서비스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음
- 국립공원관리본부에는 지질, 동식물, 생태, 문화 및 유적분야 등 35명에 달하는 연구 인력이 활동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기도 하고, 작은 도시나 지역별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

유산에 맞는 특성에 따라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교육과 함께 지원, 홍보 등을 수행함

○ 국립공원 내 지역별 자원의 현장관리 및 활용은 작은 도시단위 또는 지역주민 중심의 재단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음

- 즉, 자원의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은 국립공원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최적의 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인 운영체계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문가이드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입장료의 징수 및 이용 등이 해당됨

○ 시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이나 전 지역이 국제보호지역이고 도 내 작은 단위의 마을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제주도와의 유사함

- 그러므로 국립공원관리본부의 기능을 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의 연구, 기획·조정, 지원 및 홍보를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계의 적용을 고려해 볼 만함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의 주인이며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교육 및 지원과 홍보 기능을 서비스하는 통합컨트롤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임